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유성티엔에스(02480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장소현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티엔에스(024800)

철강 물류의 반세기 노하우, 이제 대한민국 화물운송의 중심으로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김원철
설립일자	1977.08
상장일자	1999.12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주요제품	도로화물운수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4,3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608
발행주식수	37,051,812
52주 최고가(원)	5,980
52주 최저가(원)	2,110
외국인지분율	1.19
주요주주	(유)한일자산관리엔투자

■ 반세기 운송 역량을 기반으로 구축된 철강재 전문 종합물류기업

유성티엔에스(이하 동사)는 1977년 설립 이래 수십 년에 걸쳐 국내 철강재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아온 코스닥 상장 종합물류기업이다. 포스코와의 공로운송 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과 장기 물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로운송·철도운송·보관·철강중개에 이르는 종합물류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양을 비롯해 포항, 당진, 의왕, 군산 등 전국 주요 철강 산업 거점에 물류 사업장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물류망 인프라를 바탕으로 철강재 운송 전 주기를 커버하는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PL 컨설팅·자체 IT 솔루션 내재화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 제공

동사는 단순 운송을 넘어 3PL(제3자 물류) 물류 컨설팅과 자체 IT 솔루션을 접목하여 화주들에게 물류비 절감 및 최적 물류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SCM(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물류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중량물 운송 역량을 다양한 산업 및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가는 동사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포항 운송 및 광양·포항·의왕 포스코플로우 유통기지 운영을 수행하는 등 주요 고객사 물류 운영을 일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ISO 45001·14001 이중 인증 취득으로 안전·환경 경영 신뢰성 확립

동사는 2025년 10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물류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취득 및 갱신하여 안전·환경 기준에서 공신력 있는 물류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다층적 인증 체계는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계약 유지 및 신규 물류 수탁 수입에 있어 실질적 경쟁 우위로 기능하며, 서비스 품질과 운영 안전성에 대한 외부 검증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373.2	-14.25	21.0	0.88	695.4	29.30	14.47	11.73	35.95	1,549	12,622	1.43	0.18
2024	1,528.6	-35.59	49.3	3.22	708.6	46.36	12.70	11.38	23.71	1,537	14,233	1.22	0.13
2025	670.4	-56.14	12.3	1.83	575.9	85.90	10.90	9.12	17.38	1,480	15,883	1.67	0.16

기업경쟁력

철강재 전문 물류 노하우

- 1986년 포스코 공로운송 계약 체결 이래 40년 이상 철강재 물류 특화 운영 역량 축적
-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장기 물류계약 유지, 안정적 물동량 확보
- 광양·포항·당진·의왕·군산 전국 5개 핵심 거점 사업장 구축

통합 물류 솔루션 역량

- 3PL 물류 컨설팅과 자체 IT 솔루션을 결합한 화주 맞춤형 물류비 절감 서비스 제공
- 공로·철도·보관 등 전 모드 커버, SCM 전 구간 원스톱 대응 가능
- ISO 45001·14001 이중 인증으로 품질·안전 신뢰 확보

핵심 기술 및 대표 서비스

철강재 공로·철도 운송

- 광양·울산·광양·부산 구간을 비롯한 국내 주요 철강 물류 노선에서 다수의 관리 차량을 활용하여 톤당 최적 단가 기반 정시·정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용화차 활용 철도운송 부문에서도 광양·신례원, 신례원·태금 노선을 중심으로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3PL 물류 컨설팅 및 IT 솔루션

- 고객사 물류 운영 형태에 대한 정밀 컨설팅을 통해 최적 물류시스템 설계를 지원하며, 자체 개발 IT 솔루션과의 연계로 화주의 물류비 절감 및 가시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차별화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동사 물류사업>



시장경쟁력

국내 철강 시장 성장 수혜

- 국내 철강 시장은 건설·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중장기 안정적인 확대가 전망되고 있으며, 동사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핵심 철강사와의 장기 물류계약을 통해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 구조를 갖추고 있음

철강재 전문 물류 점유율

- 국내 상장 운송업체 내에서 CJ대한통운, 세방, 동방 등의 대형 종합물류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순수 철강재 도로화물운송 매출을 기준으로 한 실질 경쟁력은 공시된 수치보다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음

관계기업 투자자산 기반 가치

- 연결 기준 상당 규모의 관계기업투자 및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운송 영업 사업 외에도 견고한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있음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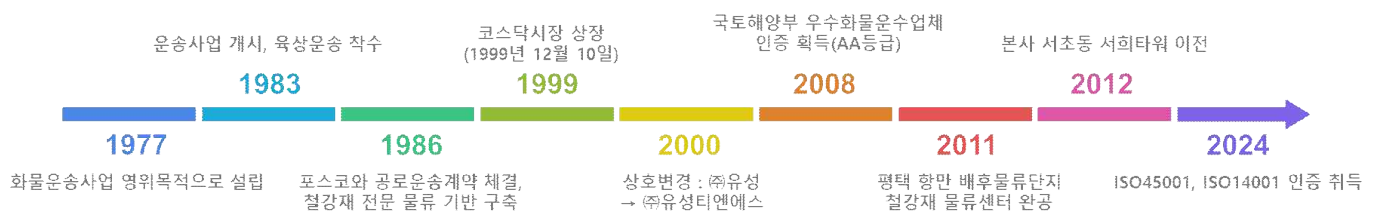
철강재 전문 종합물류기업, 전국 거점망과 관계기업 자산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 추구

동사는 국내 철강재 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 공로·철도·보관 등 전 물류 모드와 3PL 컨설팅·IT 솔루션을 결합한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5개 이상 주요 거점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 규모의 관계기업투자 및 투자부동산을 보유하여 안정적 자산 기반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77년 8월 설립되어 1983년 운송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1986년 포스코와 공로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래 국내 철강재 전문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였다. 199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상장 이후에도 평택항만 배후물류단지 철강재 물류센터 완공,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 서초동 서희타워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2024년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후, 2025년 물류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갱신하며 안전·환경 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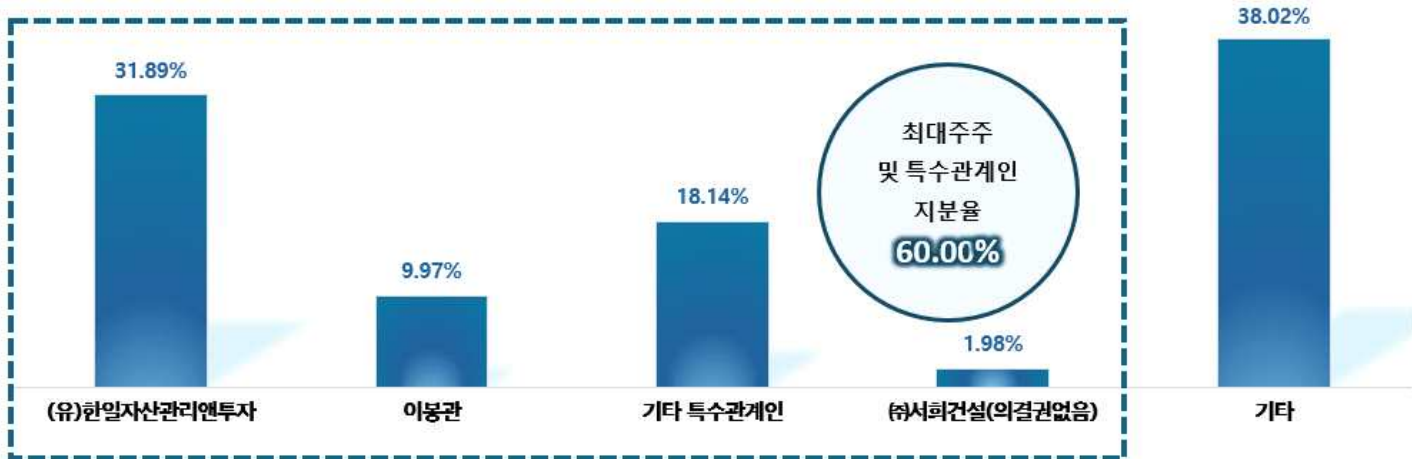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의 대표이사는 김원철 대표이사(1967년생, 아주대학교 대학원 수료)로, 현재 (주)서희건설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서희유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로 확인되며, 사내이사로는 최대주주 이봉관(1945년생,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前 포스코 근무) 씨가 장기 재직하며 그룹 전략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이은희 이사(구매본부 임원), 이성희 이사(재무본부 임원), 이도희 이사(미래전략실 실장) 등 오너 일가가 각 핵심 부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관리 부문장 김팔수 이사 또한 장기 재직으로 내부 관리 역량을 지원하고 있어 경영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준 최대주주인 (유)한일자산관리엔투자가 11,815,107주(31.89%)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봉관 이사 본인이 3,695,136주(9.97%), 이도희 이사 1,903,831주(5.14%), 이은희 이사 1,593,939주(4.30%), 이성희 이사 1,289,016주(3.48%) 등 오너 일가 직접 보유분이 상당하다. 계열회사인 (유)애플디아이, (유)애플이엔씨, (유)이엔비하우징을 합산한 의결권 있는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율은 60.00%로,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주)서희건설 보유 주식은 상호보유주로 의결권 없음, 분기보고서(2026.03.) 기준

■ 사업 분야

동사는 운송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외식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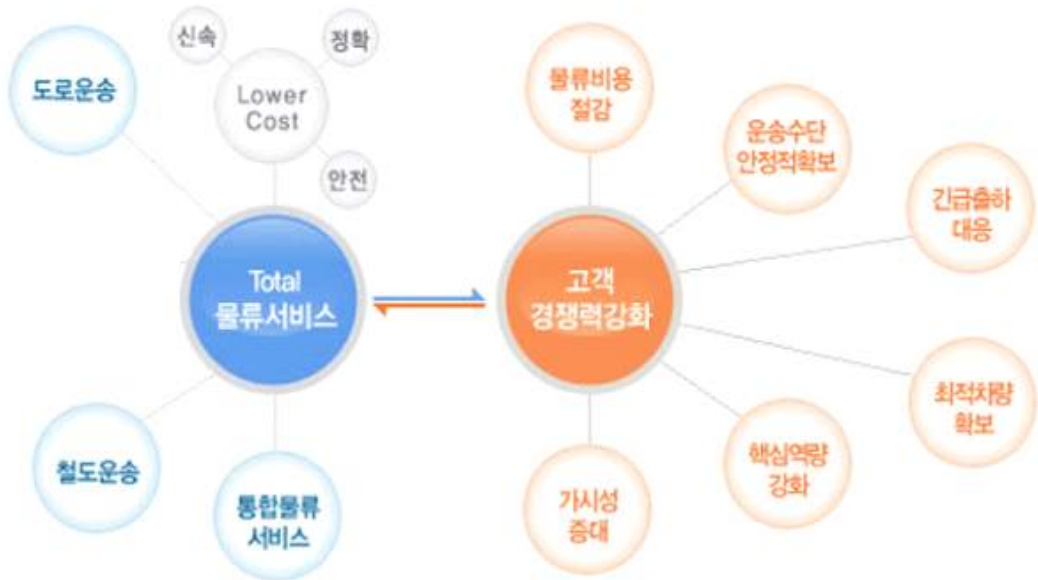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운송 부문	철강제품·컨테이너 등 대형화물, 사무실 임대, 철근 중개	공로운송·철도운송·보관 등 철강재 및 대형화물 전 물류 모드 제공,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 장기 물류계약 수행, 전국 거점 운영, 3PL 컨설팅 및 자체 IT 솔루션 서비스
기타	외식사업	외식 관련 사업 운영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동사는 철강재 전문 공로운송 및 물류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운송부문은 1986년 포스코와 공로운송 계약을 체결한 이래 국내 주요 철강사 물류를 전담해 온 핵심 사업부문으로, 다수의 관리 차량과 직거래 차량을 활용하여 전국 철강재 공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의 다년간 장기 물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광양·포항·당진·의왕·군산 등 전국 5개 이상 핵심 거점에 물류 사업장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철강재 운송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도운송 분야에서도 다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철강재 철도운송 분야에서 태극역, 광양역, 신레원역, 괴동역, 오봉역, 군산역 6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용화차를 활용한 복합운송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3PL 물류 컨설팅과 자체 IT 솔루션을 결합하여 화주들에게 물류비 절감 및 최적 물류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당진·포항 운송 및 광양·포항·의왕 포스코플로우 유통기지 운영 등 고객사 물류 운영 전체를 일괄 수탁하는 형태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다. 와이케이시틸 등 국내 제강사로부터 철근 등을 공급받아 주요 판매처에 공급하는 철강중개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동사가 영위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유통부문은 2025년 2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 종료로 마무리되어 현재는 운송부문이 핵심 축으로 집중된 구조로 재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 동사의 통합물류서비스



자료: 동사 홈페이지

2025년 2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 종료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유통부문이 완전히 정리되면서, 동사는 설립 이래 핵심 역량으로 삼아온 철강재 전문 운송 사업에 자원과 역량을 온전히 집중하는 구조 재편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운송부문이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단일 사업 중심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운송 본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구조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1분기에도 운송부문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ISO 45001 및 ISO 14001 이중 인증 취득 등 운영 품질·안전 체계 강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하역·보관·서틀·철도운송을 연계한 전략적 통합물류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물류비 경쟁력 강화와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사업 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철강재 물류운송 특화 역량과 철도운송 노하우를 기반으로 친환경 물류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을 사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로 대비 탄소 배출량이 낮은 철도운송의 비중 확대를 통해 대형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물동량 정보 수집을 통한 공차율 최소화, 숙련 인적자원 확보를 통한 무사고 운송 체계 유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핵심 대형 화주와의 장기 계약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물량 개발 및 중량물 운송 역량의 다양한 산업·제품군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객 집중도를 분산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와이케이스틸 등 국내 제강사를 통한 철강중개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송과 철강중개 간 시너지를 통해 국내 철강 물류·유통 가치사슬 내 입지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외 원가 압박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동사의 철강물류 전문성과 전국 거점망은 시장 성장의 구조적 수혜를 누릴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국내 철강물류 및 철강재 유통 시장, 건설·자동차·에너지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궤도 진입

국내 철강 시장은 건설·자동차·조선·기계 등 핵심 수요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 중장기 안정적인 확대가 전망되며, 철강재 물류는 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와 장기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거점망을 보유한 철강재 전문 물류기업으로, 시장 성장의 구조적 수혜를 누릴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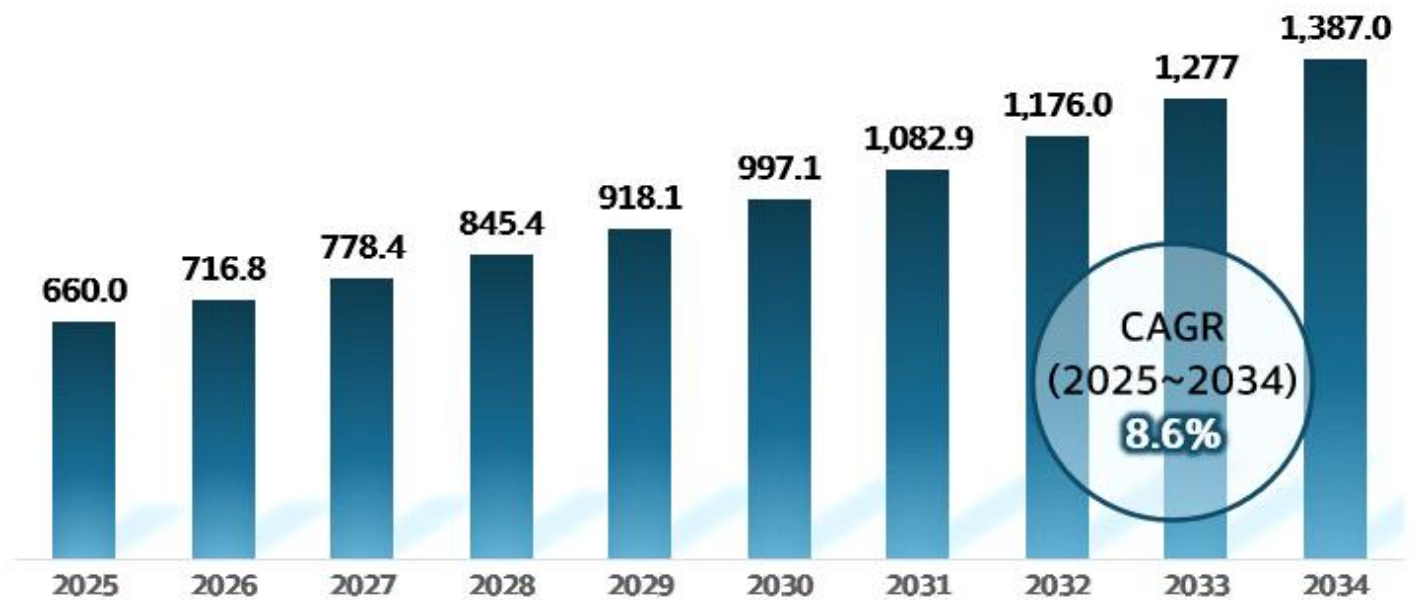
■ 국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동사의 목표시장은 국내 철강물류 및 철강재 유통 시장으로 파악되며, 철강재 전문 공로·철도 운송과 철강중개업을 핵심 제공 영역으로 설정하여 국내 철강 산업 가치사슬 내 물류·유통 전 구간에서의 경쟁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IMARC Group에 따르면, 한국 철강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660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8.6%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34년에는 약 1,38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철강 시장은 건설·자동차·에너지 저장 솔루션 등 다양한 수요산업의 확대를 배경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재의 물류·유통은 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 성장과 직접 연동되며, 동사와 같이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와 장기 물류계약을 체결한 전문 물류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국내 철강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IMARC Group, South Korea Steel Market Report 2026-2034(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철강 시장은 포스코,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소수의 대형 철강사가 생산을 과점하는 구조로, 하류 물류·유통 단계에서는 철강사들의 아웃소싱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전문 물류기업의 역할이 더욱 드러나고 있으며, 단순 운송을 넘어 보관·하역·유통기지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3PL형 물류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철강 수요는 건설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조선·전기기기·기계장비 등도 주요 수요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강도 경량 철강 소재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로 인한 특수강 수요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 공정(HyREX)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컬러강판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인수를 단행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의 사업 고도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철강재의 다품종·소량 물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철강 품목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국내 철강물류 시장에서는 철강사와의 장기계약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물류 전환에 대응하는 기술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들이 물류 효율화 및 SCM 통합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IT 솔루션 및 3PL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십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 철강 생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발자국 관리 및 철도·복합운송 활용 역량이 철강 물류기업의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사는 자체 IT 솔루션과 공로-철도 복합운송 역량, 전국 거점망을 바탕으로 철강재 물류·유통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CJ대한통운(주)	•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으로 철강재를 포함한 육상·해상·항공·택배 등 전 모드 물류 서비스 제공
세방(주)	• 항만하역·육상운송·창고·포워딩 등을 아우르는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 주요 항만 거점 기반 중량물·철강재 운송 전문성 보유
(주)동방	• 항만하역·육상운송·철도운송 등 복합 물류서비스 제공, 포항·광양 등 철강 산업 거점 중심으로 운영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자체 IT 솔루션·철강재 특화 운송 노하우·복합운송 역량을 핵심으로 한 실전형 물류 기술

동사는 수십 년간 누적된 철강재 전문 운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3PL 컨설팅·자체 IT 솔루션·공로-철도 복합운송 역량을 융합한 통합 물류 기술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ISO 45001 및 ISO 14001 이중 인증을 통해 기술·품질 수준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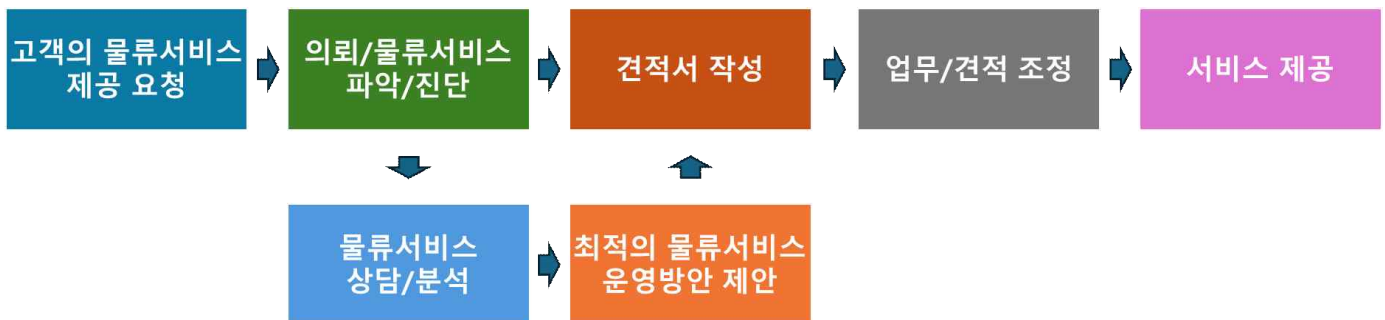
■ 철강재 공로운송 전문 기술 역량

동사는 수십 년 이상의 철강재 공로운송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철강재·컨테이너·중량물 등 대형화물 운송에 특화된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수의 관리 차량을 활용하여 광양-울산·광양-부산 등 국내 주요 철강재 운송 노선의 안정적 운행 체계를 유지하며, 오랜 운영 노하우 기반의 경로 최적화 및 차량 운용 기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단가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포항 운송 및 광양·포항·의왕 포스코폴로우 유통기지 운영을 수탁함으로써, 단순 운송을 넘어 고객사 물류 운영 전체를 일괄 수행하는 토털 물류 관리 역량을 실증하고 있다.

■ 철강재 철도운송 및 육상 복합 물류 역량

동사는 철강재 철도운송 분야에서 다년간에 걸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국내 상위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용화차를 활용하여 대용량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운송하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철도운송은 도로운송 대비 낮은 단위 비용과 친환경성을 갖춰 탄소 감축 규제 강화 환경에서 경쟁 우위 요소로 기능하며, 동사는 철도와 공로를 연계한 복합운송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노선·운임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 고객사가 탄소배출 절감 목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동사의 철도운송 역량은 단순 운송 파트너를 넘어 친환경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림 5. 물류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3PL 컨설팅 및 자체 IT 솔루션 기술

동사는 3PL 물류 컨설팅과 자체 개발 IT 솔루션을 결합한 스마트 물류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물류 운영 형태를 정밀 분석하여 최적 물류시스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고객사별 SCM 전반에 걸친 물류 데이터 분석 및 가시성 강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단순 운임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컨설팅 서비스로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물류 IT 솔루션 역량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유지 및 신규 물류 수탁 수임에 있어 핵심 영업 경쟁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24년 12월 ISO 45001 및 ISO 14001 이중 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환경 관리 기술 역량을 공식 검증받았다.

그림 6. 동사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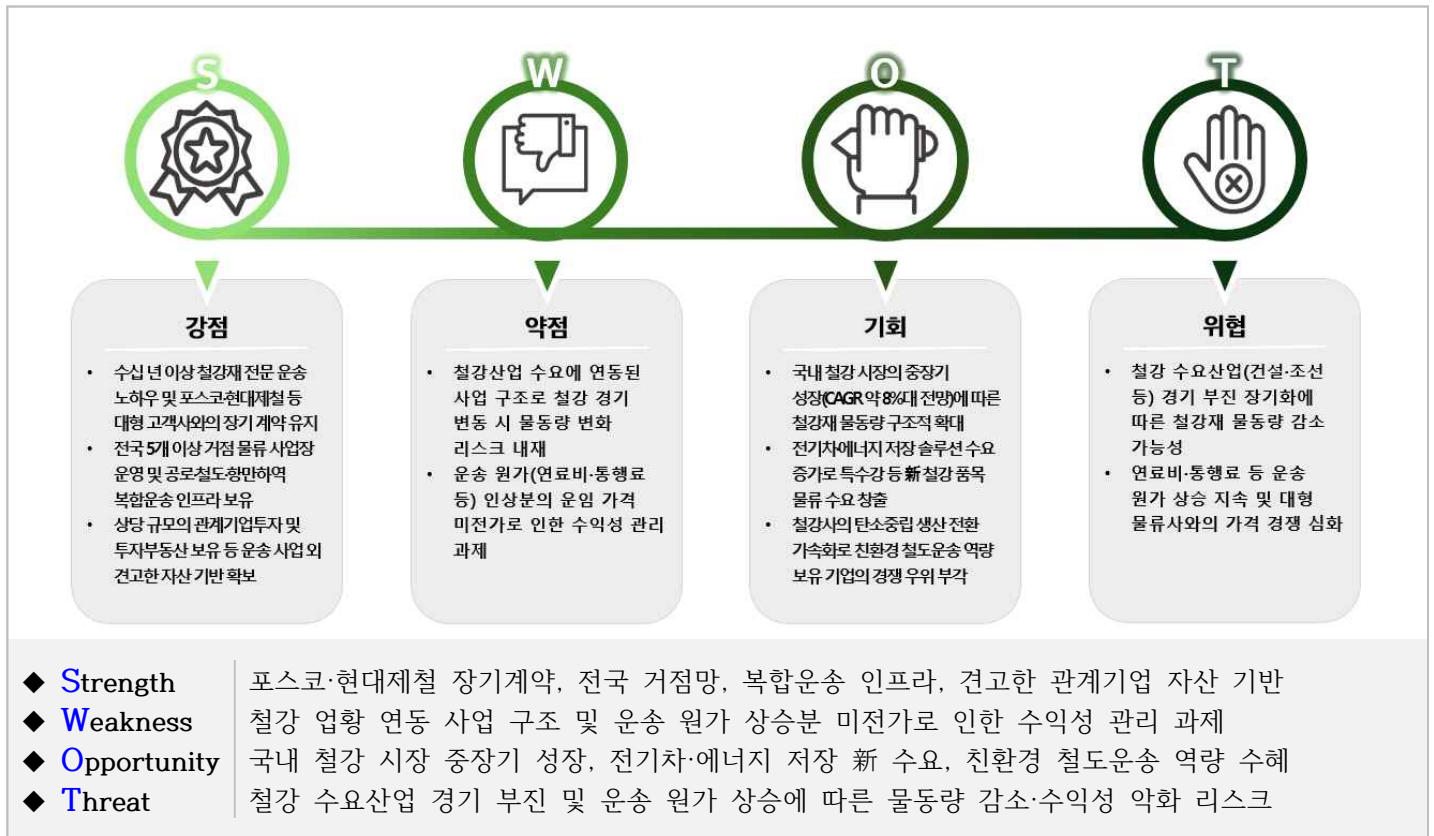


자료: 동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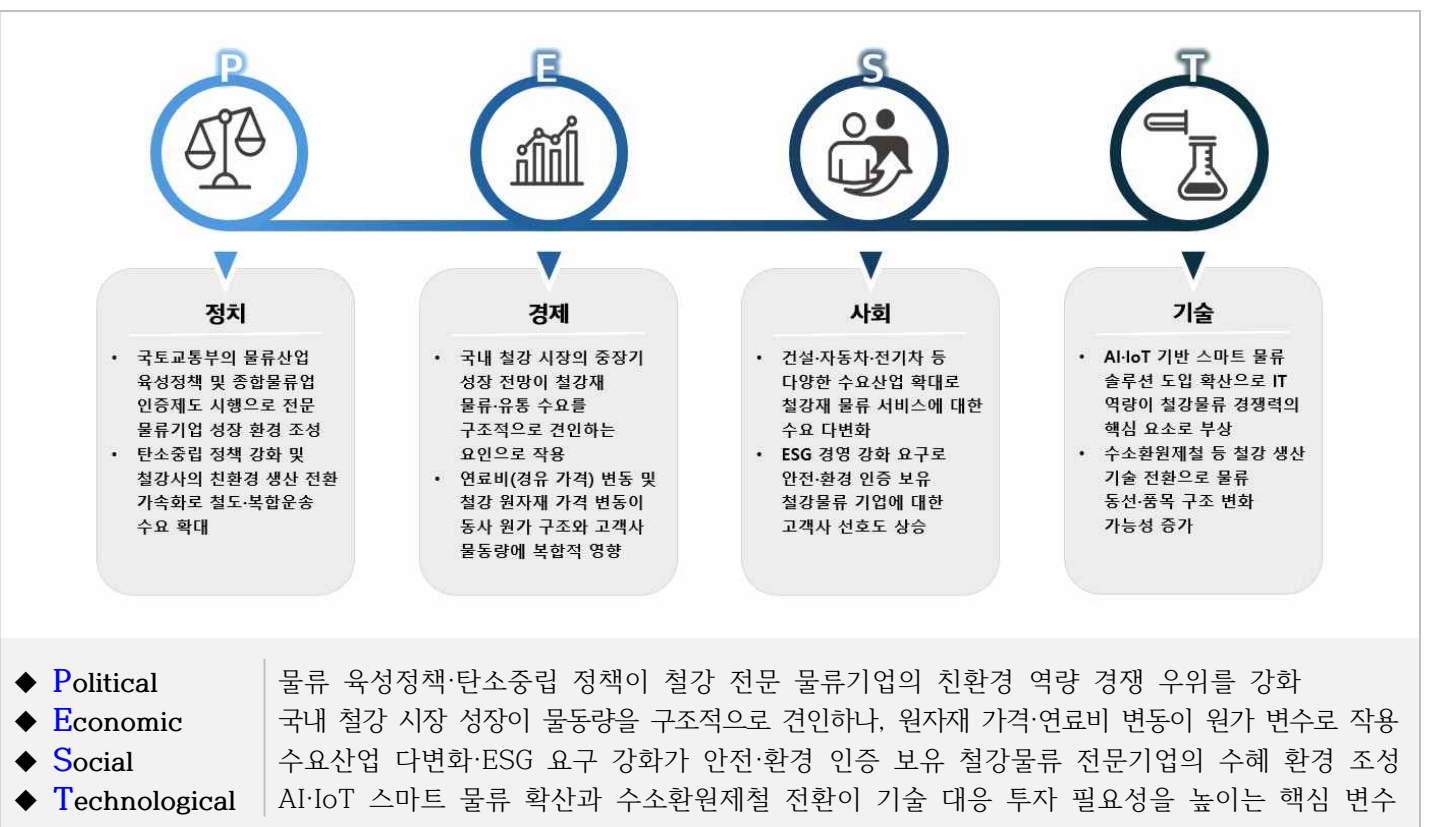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화물운송 서비스업 특성상 별도의 전담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지는 않으나, 철도운송 분야에서는 다년간에 걸친 내부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철강재 철도운송 상위권 역량을 축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활동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R&D 비용 및 매출 대비 비율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동사의 기술 역량은 전용화차 인프라 투자, IT 솔루션 자체 개발, 안전·환경 인증 유지 관련 비용 집행 등 현장 운영 역량 강화 투자의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운영 중심의 역량 축적이 장기 고객 관계 유지 및 원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휴게소 운영사업 중단으로 매출은 축소, 지분법이익으로 높은 순이익률을 가진 우량 재무구조

동사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휴게소운영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56.1% 감소한 670.4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을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575.9억 원을 실현하며 부채비율 17.4%의 자산가치 중심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 수익성 회복 조짐, 향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

동사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858.2억 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물류 본업 자체의 감소보다는 비주력 사업 정리에 따른 수익성 개선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동 기간 매출액 감소 내역을 분석해 보면,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임대차 계약 종료(2025년 2월)로 인한 758억 원 감소분과 경영합리화에 따른 적자 지점 영업종료(평택, 울산)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라,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3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이는 전년 동기에 휴게소 매출이 81억이 반영되었던 것을 반영하면, 본업은 견조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3%에서 7.0%로 큰 폭 개선되어 외형 축소가 오히려 물류 본업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향후 매출은 저수익 사업 정리를 마무리한 물류 본업 기반으로 안정화되며,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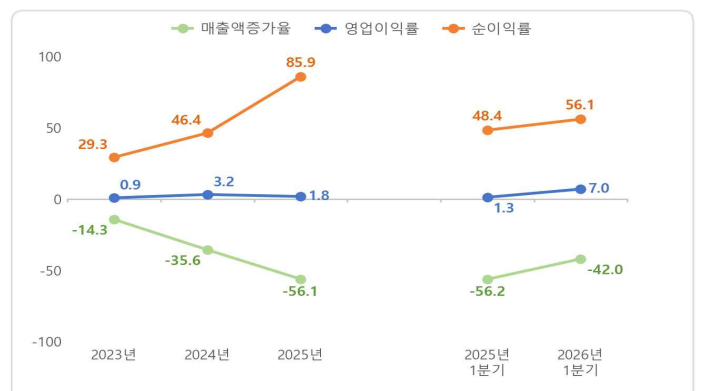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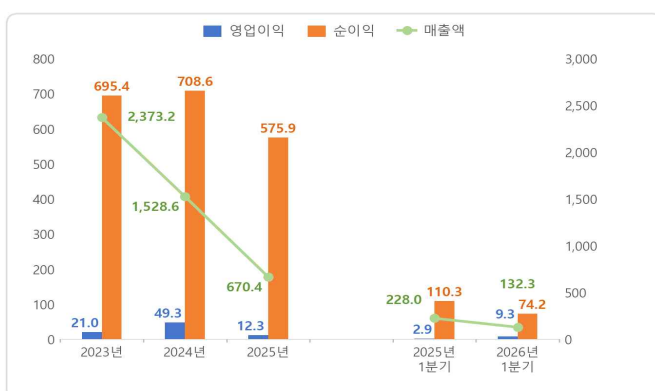
■ 순이익 575.9억 원(순이익률 85.9%)으로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이 주효

동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1.0억 원에서 2024년 49.3억 원으로 개선된 뒤 2025년 12.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95.4억 원 · 708.6억 원 · 575.9억 원으로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하였다(순이익률 각각 29.3% · 46.4% · 85.9%). 이는 건설사 (주)서희건설 등 관계기업의 실적이 지분법이익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의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2025년 1.3%에서 2026년 7.0%로 개선되어 운송 원가 관리를 통한 본업 수익성 회복 여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기업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동사의 높은 순이익률도 지속될 수 있어, 관계기업의 실적 흐름이 동사 순이익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유성티엔에스(024800)

■ 자본총계 5,534.6억 원, 부채비율 17.4%의 자산가치 우량 재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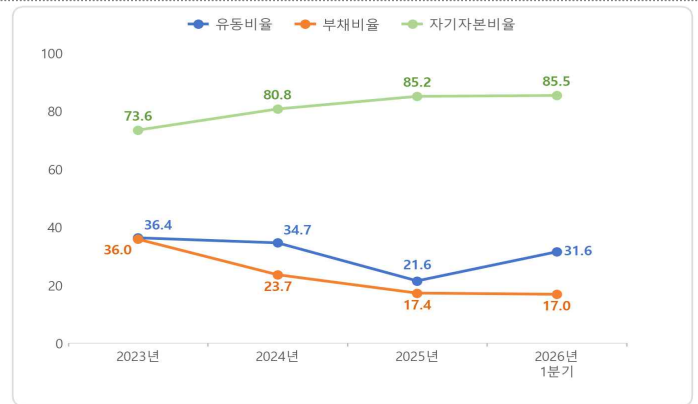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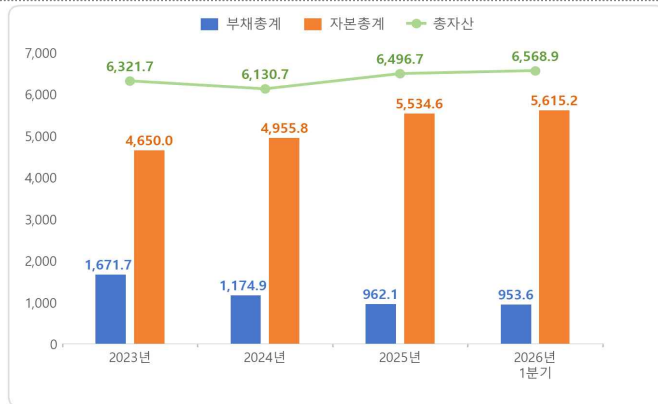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91.0억 원 감소한 6,130.7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496.8억 원 감소한 1,174.9억 원, 자본총계는 이익 누적으로 305.8억 원 증가한 4,955.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7%p 하락한 34.7%, 부채비율 12.3%p 하락한 23.7%, 자기자본비율 7.2%p 상승한 80.8%).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66.0억 원 증가한 6,496.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총계는 212.8억 원 감소한 962.1억 원, 자본총계는 578.8억 원 증가한 5,534.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3.1%p 하락한 21.6%, 부채비율 6.3%p 하락한 17.4%, 자기자본비율 4.4%p 상승한 85.2%).

자산의 상당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4,657억 원과 투자부동산 1,267억 원 등 비유동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유동비율은 낮으나, 부채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자기자본비율이 85.2%에 달해 재무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2,373.2	1,528.6	670.4	228.0	132.3
매출액증가율(%)	-14.3	-35.6	-56.1	-56.2	-42.0
영업이익	21.0	49.3	12.3	2.9	9.3
영업이익률(%)	0.9	3.2	1.8	1.3	7.0
순이익	695.4	708.6	575.9	110.3	74.2
순이익률(%)	29.3	46.4	85.9	48.4	56.1
부채총계	1,671.7	1,174.9	962.1	1,168.2	953.6
자본총계	4,650.0	4,955.8	5,534.6	5,064.8	5,615.2
총자산	6,321.7	6,130.7	6,496.7	6,232.9	6,568.9
유동비율(%)	36.4	34.7	21.6	37.5	31.6
부채비율(%)	36.0	23.7	17.4	23.1	17.0
자기자본비율(%)	73.6	80.8	85.2	81.3	85.5
영업현금흐름	-35.1	-226.3	43.9	-2.1	-100.0
투자현금흐름	60.6	340.3	99.1	22.7	75.5
재무현금흐름	-128.9	-133.9	-197.3	-6.9	-2.8
기말 현금	114.4	94.5	40.1	108.2	12.9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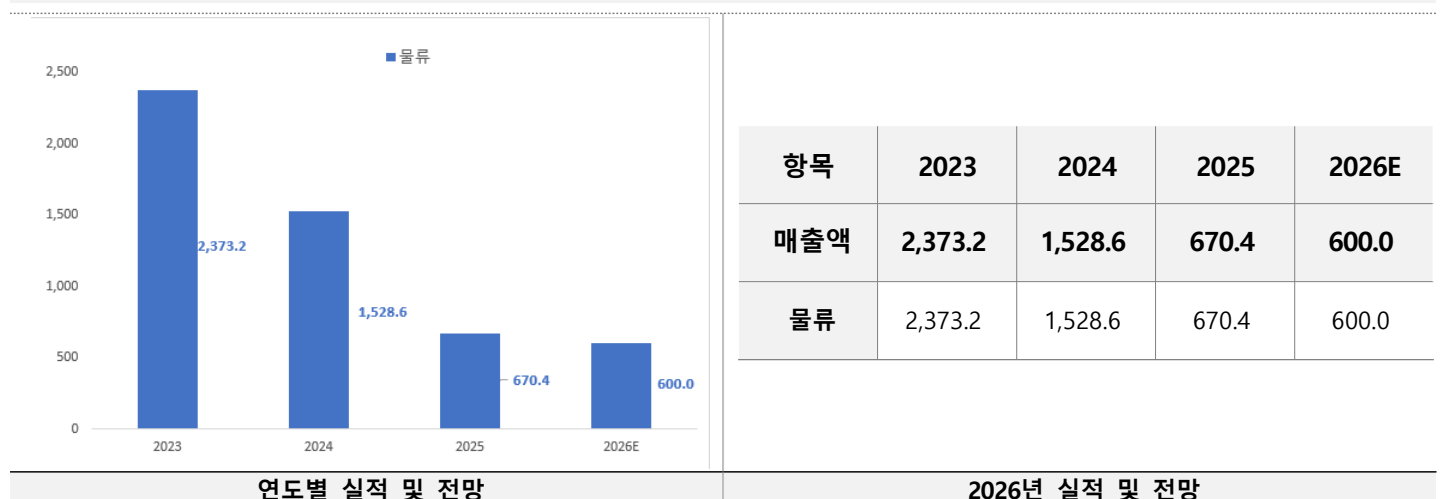
동사의 향후 실적은 철강재 물류 본업의 물동량과 관계기업 실적에 연동된 지분법이익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측면에서는 휴게시설 임대 종료가 2025년 실적에 반영되며 비주력 매출이 정리된 만큼, 향후 매출은 물류 본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운수업 시장이 2024년 254.7조 원으로 성장하고 물류 아웃소싱·복합운송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은 전국 물류망과 철도·항만 연계 인프라를 갖춘 동사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주력 화물인 철강재 수요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정 국면에 있어 물동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관계기업 (주)서희건설의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5월 재개되며 지분가치와 지분법이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확정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재무 측면에서는 매출 축소에도 물류 본업의 운송 원가 관리를 통한 수익성 회복 여지가 1분기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확인되며, 부채비율 17.4%의 저부채 구조와 영업활동 현금흐름 흑자 전환으로 재무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25년 기업신용등급이 BBB0로 상향되며 재무 신뢰도가 개선되어, 물류 인프라 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순이익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은 서희건설 등 관계기업의 실적에 좌우되어, 관계기업 실적 흐름에 따라 순이익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7월 자기주식 78.8억 원 소각은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총수를 축소하는 조치로 현금 유출 부담이 제한적이어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해 동사의 2026년 매출액은 연결 범위 축소의 전년 잔여 효과와 철강 수요 조정을 감안할 때 약 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나, 이는 물류 본업의 안정적 물동량을 전제로 한 추세 기반 추정치로 철강재 물동량이 회복되거나 신규 화주를 확보할 경우 상회할 수 있다. 순이익은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의 비중이 높아 서희건설 등 관계기업의 실적 개선 시 확대될 수 있으나, 관계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산가치 대비 낮은 주가 구간에서 관계기업 거래 정상화와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이 병행되고 있어, 자산가치 재평가 여부가 중장기 기업가치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자기주식 소각과 사업 집중화로 주주가치 제고 및 운송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기대

동사는 2026년 7월 1,826,442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며 강력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표명하였고, 유통부문 철수 후 운송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 재편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사업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자기주식 소각 결정,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신뢰 회복

2026년 7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사는 기취득 자기주식 1,826,442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각일은 2026년 7월 15일이다.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37,051,812주에서 35,225,370주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4.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본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본금 감소 없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주식 수 감소는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며,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 가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서희유성그룹 계열 내 서희건설이 2026년 7월 동일 시점에 대규모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진정성 있는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천명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식 소각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희석 방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주주환원 정책의 정석으로 평가된다.

■ 사업 구조 재편 완료, 운송 핵심 사업 집중화

2025년 2월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차 계약 종료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유통부문이 완전히 정리되었으며, 동사는 이를 계기로 본업인 철강재 전문 운송 사업에 역량을 온전히 집중하는 구조 재편을 완료하였다. 2026년 1분기에도 운송부문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ISO 45001·14001 이중 인증 취득 등 운영 품질 강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집중화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계약 유지 기반을 강화하며, 철도·복합운송 역량과 결합하여 운송 전문기업으로서의 시장 입지를 한층 견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전략 : 사업 영역 확대 및 친환경 물류 선도

동사는 전용화차 및 철송 거점 개발을 통한 철강재 물동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물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 강화를 사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 물류 전환 정책 및 대형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와 방향성을 같이한다. 자체 IT 솔루션 고도화를 통한 물류 가시성 강화와 3PL 컨설팅 역량 확대가 부가가치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 규모의 관계기업 투자자산과 투자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재무 건전성은 중장기 사업 투자의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티엔에스(02480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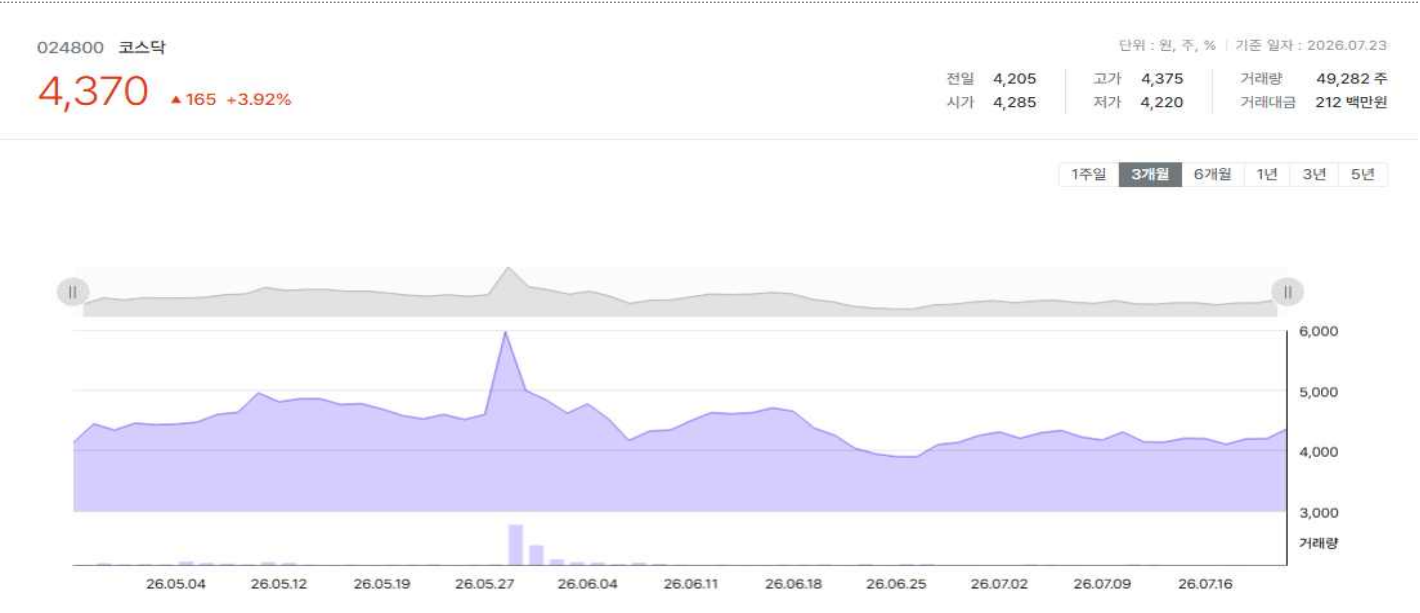
☒ 생성형 AI 답변 :
“유성티엔에스는 최근 2025년 결산 실적에서 유통 사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500억 원대 이상의 견조한 순이익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포스코 등 대형 철강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내 1위의 철강재 철도운송 경쟁력과 종합물류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크게 기대됩니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이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유성티엔에스	X	X	X